

국토교통부,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위한 글로벌 협력

- 29일 미국 기체제작사와 UAM 상용화·실증사업 협력 방안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5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기체 제작사 아처 에이비에이션(이하 아처社)의 니킬 골(Nikhil Goel) CCO(Chief Commercial Officer), 카카오모빌리티의 최우열 부사장과 만나 한국 정부의 UAM 상용화 및 실증사업(그랜드챌린지)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 - 아처社는 카카오모빌리티, LGU+, GS건설로 구성된 ‘UAM Future팀 컨소시엄’에 UAM 실증사업 기체사로 참여하는 미국 기업으로,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MOU 체결과 향후 상용화 협의를 위해 방한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UAM 상용화에 대한 비전과 정책 현황 등을 소개하였다.
 - 국토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증사업(그랜드챌린지)을 통해 UAM 안전성을 검증하고, '25년 말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최초 상용화한 이후 '26년부터 전국으로 UAM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.
 - 특히, 한국의 그랜드챌린지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활용한 교통 관리 체계 구축에 도전하며, 기체 운항 및 교통관리, 버티포트 운영 등 실제 UAM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통합운영 능력을 실증한다.
- 백원국 2차관은 “UAM 기체 분야에서 세계 선도 기업인 아처社 기체의 통합운영 실증 장소로 한국을 선택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”며, “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 - 이에 니킬 골 CCO는 “UAM 상용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가 매우 인상 깊다”며, “여러 유수의 기체가 참여하는 실증사업에 아처도 함께하게 되어 영광”이고 “앞으로도 UAM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”고 화답하였다.

- 국토교통부는 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.

2024. 5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